

총리·부총리 지낸 저물급 인사들 광주로 온 까닭은?

김황식·전윤철 '삼고초려' 영입
윤장현 시장 '통큰 인사' 화제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국무총리급 인사를 잇따라 영입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총리급 인사들이 지자체 유관 기관의 대표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드문 경우여서 광주는 물론 타 지자체들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조직위원장에 취임하고, 13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윤장현 시장 '통큰 인사'가 화제다.

이같은 거물 인사의 영입은 주변의 견이나 제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윤장현 시장 본인의 아이디어였다. 특히 윤 시장은 영입 제안을 거절한 이들 인사를 포기하지 않고 삼고초려는 물론, 그들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을 통해 끈질긴 구애를 했다.

윤 시장은 회의에서는 물론 사석에서도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모신다'라는 표현으로 영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국경 경험과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경륜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두 인사의 경험을 사겠다는 범위를 넘어 그들 자신이 지닌 브랜드를 광주와 접목시켜 지역의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물론 광주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과거 단체장들은 유관 기관 인사자신보다 낮은 직급이거나 컨트롤이 쉬운 사람을 고르는 게 상례였다. 권력의 속성상 단체장 자신이 모든 권한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한 탓이다. 또한 다음 선거에 도움을 줄 사람을 고르는 포석 인사이거나 향후 정적이 될 수 있는 '호랑이 새끼'를 배제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윤 시장과 비교하면 김황식 전 총리 한 살,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무려 열 살이 많다. 이들은 나이만으로도 선배일 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이나 전국 지명도가 워낙 높아 인사권자가 윤 시장일지라도 사실상 그들을 쥐락펴락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친 김 전 총리는 총리 재임 기간 원만한 국정 운영으로 호감을 샀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 감사원장 등을 지낸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 경제와 행정의 산증인으로까지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윤 시장의 이들 영입은 지역 출신 최고의 인사들로부터 한 수 배우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 시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권력 내려놓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경 경험과 전문성, 사업의 국제화 등이 필요한 행사를 이들 인사에게 맡기고, 시는 간섭 대신 지원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시장은 "국가 운영과 행정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다"면서 "두 분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통찰력이 유대회의 안정적인 운영, 비엔날레의 세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뽕튀기로 만든 우리가족 얼굴이에요”

14일 광주시 북구 구립 일곡도서관에서 열린 '그림책과 함께하는 리딩푸드 창의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뽕튀기로 만든 우리 가족 푸드아트 모형을 들고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리딩푸드 창의놀이는 다양한 식품과 재료를 이용, 주변의 인물과 사물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개관 코앞인데... 정부·여당에 발목잡힌 '法'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② 문화전당 개관 선결 과제

국가운영 법적토대 급선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개관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문화전당 개관과 운영에 필수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전당 설립과 운영은 현행 아특법 27조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서는 "▲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 ▲ 문화전당

'아특법' 문광위 통과 못해
인력·예산 운용 어려움
2월국회서 반드시 처리를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둔다. ▲ 이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 조항 외 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전당 관련 시행령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즉 현행 아특법은 문화전당이 국가소속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규정이 없어 개관 준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관 후 효율적 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나서 아특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박 의원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범안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애초 합의를 뒤집으면서 아특법 개정안 처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해서라도 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시행령을 통해 국가소속 기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박혜자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14일 "정부는 아특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소속 기관'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문화전당 운영의 모든 부분을 법인에 위탁하려 했고 법률 개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둔다'는 조항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며 "이 같은 정부를 믿을 수 없어 아특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을 통해 국가소속 기관을 관

철하더라도 문화전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개정안을 만든 또 다른 이유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게 광주 문화예술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것은 문화전당 개관을 위해 영입한 기존 200여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개관 준비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제 지역정착권이 할 일은 아특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미 1월 처리는 물 건너간 상황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해서 개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특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광주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간주,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천·순천 동천 맑아졌다 BOD 크게 떨어지고 일부 1급수 회복

'구정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전락했던 광주천이 맑아지고 있다.

순천 동천은 1급수로 회복되는가 하면 광주천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질이 관찰되는 등 도심 하천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1980~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오염이 심각했던 광주천 등 전국의 도심하천 2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82~2005년 이들 도심하천의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때의 BOD 평균은 76.9mg/ℓ였으나 지난해 조사 평균은 3.8mg/ℓ로 95%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OD는 물속의 유기물이 분해될 때 소모되는 산소의 양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다는 의미다.

광주천(중류지점)의 경우 지난 1983년 BOD가 56.8mg/ℓ였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4.1mg/ℓ로 뚝 떨어졌다.

순천시 동천(중류)은 지난 1997년 BOD가 18.7mg/ℓ였던 것이 지난해 조사에서는 1.8mg/ℓ의 1급수(BOD 2mg/ℓ 이하)로 회복하는 등 수질이 두드러지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복 70년 3·1마라톤 50년 60년 호남예술제
광주일보가 함께 합니다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점
신성자동차(주)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가인 표준 연비 및 동급
•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50 BlueTEC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ℓ (도시연비: 13.7km/ℓ, 고속도로연비: 18.4km/ℓ), 2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